

Living the

LOTUS

Buddhism in Everyday Life

6
2017

VOL. 141

開祖隨感

힘들 때가 기회

부부사이가 틀어진데다가 아이까지도 갑자기 난폭해져서 「애가 내 자식인가」 할 정도로 무서운 말을 부모에게 던질 때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라고 호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막다른 곳까지 몰려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 라고 다급해져야 비로소 다른 사람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 보려는 마음이 됩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일체중생은 모두 내 자식이다. 내가 반드시 모든 사람을 구호하겠노라」 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토록 힘든 일을 겪어야 하는가라고 원망하고 싶을 때가 인

생에 종종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 「부처님도 하느님도 없어!」 라고 자포자기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서는 결코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고통을 주는 것도 부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자신을 똑바로 주시 하여 자신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온 것이라고 가르쳐주시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때야말로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고마운 기회입니다. 또 이럴 때야말로 주변 사람들이 말을 걸어주어야 할 중요한 때입니다.

개조수감 9 P62 ~ 63

Living the Lotus
Vol. 141 (2017年6月)

【発行】立正佼成会 国際伝道部
〒166-8537 東京都杉並区和田2-7-1 普門メディア
センター 3F
Tel: 03-5341-1124
Fax: 03-5341-1224
E-mail: living.the.lotus.rk-international
@kosei-kai.or.jp
編集責任者: 水谷庄宏
編集チーフ: 金尾江利子
校閲者: 成 淑姫
編集スタッフ: 国際伝道部スタッフ

입정교성회는 1938년 개조 니와노 닛교, 협조 나가스마 묘코에 의해창립된 범화삼부경을 소의 경전으로 하는 재가 불교 교단입니다.

가정,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석존의 가르침을 살려서 평화로운 세계를 구축하고 싶다고 바라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현재는 니와노 닛찌코 회장과 함께 우리들 회원은 불교도로서 포교전도에 힘쓰면서 종교계는 물론, 각 계 사람들과 손을 잡고 국내외 여러 가지 평화활동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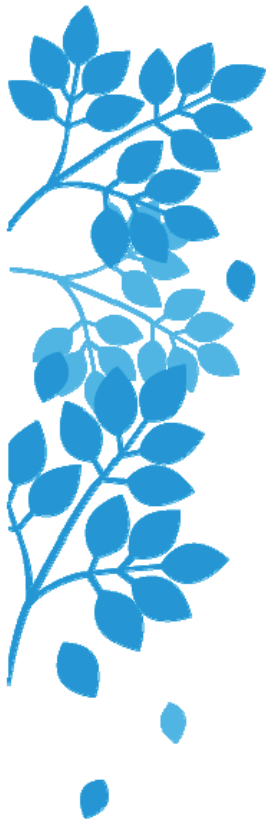
Living the Lotus -Buddhism in Everyday Life- (범화경에 살다- 생활속의 불교)라고 하는 타이틀에는 범화경의 가르침을 매일 생활 속에 살려서 흙탕물에 피는 연꽃처럼 인생을 풍요롭게 그리고 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라는 바람도 담겨 있습니다. 온 세계 사람들에게 매일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불교의 가르침을 인터넷을 통해 발신하고 있습니다.



會長 法話

우치(愚痴)를 말하지 않는다.

입정교성회 회장
니와노 니치코 (庭野日鑛)



「나는 알고 있다」고 굳게 믿는 마음

좋지 않은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들은 불평불만을 말하기 쉽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우치(愚痴)」라고 하는데 「우치」라는 두 글자는 둘 다 「어리석음」을 뜻합니다. 단 똑같은 「어리석음」이라도 「치(痴)」는 <병녀(疴)>이라는 부수 아래 <알지(知)>가 들어간 의미심장한 글자로 이른바 「지(知)」가 병들어 있다는 뜻의 「어리석음」을 말합니다. 즉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믿고, 전체를 잘 모르는 데에서 오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리고 「우(愚)」는 원숭이과의 게으른 종류를 나타내는 상형문자 밑에 <마음(心)>자가 붙은 글자로 마음의 움직임이 둔하고 답답한 「어리석음」을 의미합니다.

또 우치에는 「말해도 소용없는 말을 하며 한탄하고 있다」는 뜻이 있습니다. 확실히 우리들은 말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면서 불평불만을 말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남의 탓으로 돌려서 불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왜 거기에서 좀처럼 빠져나올 수 없는가 하면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생각하고 있는 것 등이 「절대로 틀리지 않았다」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실로 「나는 다 알고 있다」고 하는 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도리(道理)를 알면

「내가 옳다」 「나는 다 알고 있다」는 마음이 우치의 원인 중 하나라고 한다면 그 마음을 되돌아보게 될 때 불평과 투정이 적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반성함으로써 사물에 대한 통찰이 깊어지면 불평과 불만의 대상이라고 밖에 생각 못했던 일들이 「부처님의 설법」이었다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평소에 늘 부처님의 가르침과 가까이 있으면 우치(불평불만)를 말하고 싶은 때가 있어도 지혜의 마음이 그것을 진정시켜 준다고 경문에 있습니다. 「어리석음이 많은 자에게는 지혜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고」라는 한 구절인데 우치의 대상이 「나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준 부처님의 설법이였다.」라고 생각이 들 때 거기에는 지혜의 마음이 작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작용을 보다 더 확실하게 자신의 것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에 공통되는 진리, 즉 「진실의 도리」를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는 「연」에 의해 살려지고 있다는 사실, 그 은혜를 받고 지금 내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고마움, 이 점을 확실하게 알고 감사하게 되면 우치는 나오지 않게 되지 않을까요. 한 마디로 말하면 천지자연의 도리를 알면 불평불만은 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경문에는 「늘 관세음보살을 염하고 공경하면 바로 어리석음에서 멀어지는 나라.」라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을 염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계속 지니고 있으면 우치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무심코 우치가 나오려고 할 때도 관세음보살과 같은 자비의 마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자기 중심적인 언행을 막아줄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을 염한다」는 것은 자신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이므로 자신의 일보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우치나 불평에서 인연이 멀어질 것입니다. 그래도 우치가 나올 때는 「지혜가 작용할 기회」라고 마음을 밝게 바꾸거나, 또는 매일 올리는 독경공양을 통하여 마음을 잘 주시하여 진리에 맞는 시각과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되돌아가면 됩니다.

『佼成』2017年6月号より



Living the LOTUS

We welcome comments on our newsletter Living the Lotus.

living.the.lotus.rk-international@kosei-kai.or.jp



RISSHO KOSEI-KAI INTERNATIONAL BRANCHES